

순창 양지천변 꽃잔디 활짝... 핫플레이스 등극

2km 구간 수선화·튤립 70만 본 식재... 나들이 발길 북적 175억 원 투입 친수공간 변신... 하반기 경관시설 추가 조성

지난해 순창읍 양지천변을 따라 심어놓은 꽃잔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곱게 물들어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수선화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17일 순창군에 따르면 '경천 양지천의 수변개발사업'은 경천과 양지천 일대에 총 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 순창군민의 친수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양지천 산책로 약 2km 구간에 꽃잔디와 수선화·튤립 약 70만 본이 활짝 피어나 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에도 화려하게 피어난 꽃잔디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몇 십년간 보지 못했던 광경이라 군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았다. 올해도 화려한 꽃잔디에 노란 수선화까지 피어나며 봄의 정취가 더욱 느껴지고 있다.

'순창 참두름여행' 행사가 18·19일 순창 양지천 일원에서 열린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명품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양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하고 순창의 대표 농산물인 참두름과 봄나물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지난해 꽃잔디로 큰 사랑을 받았던 양지천 일대에서 천변 양쪽으로 3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두릅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두릅과 관련된 음식이나 식재료 만들기부터 두릅 무침·두릅 전·두릅 튀김 등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해 남녀노소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만족할만한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3만 원 이상 구매 시 두릅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지난해 양지천을 정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천 산책로변 꽃길 조성·경천 양지천 합류부 공원 조성·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경천변 산책로를 따라 수선화가 멋지게 피어나고 천변 경사면을 따라 꽃잔디도 양지천과 같이 예쁘게 피어날 예정이다.

경천과 양지천의 합류부에는 바닥분수와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버스킹이나 음악공연 등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순창군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명품 양지천을 만들기 위한 꽃잔디 잠초 뽕기 참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한 군청 앞 주차장에 음악분수대도 설치해 경천을 오가는 군민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 민관이 함께하는 양지천 가꾸기 사업에 지금까지 41개 사회단체·1386명이 참석했다. 2023년 가을 식재했던 꽃잔디가 그 다음해인 지난해 봄에 화려하게 피어나자 이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꽃잔디 가꾸기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었다.

참여 의사를 전한 사회단체에게 구역을 나눠 경천변 꽃잔디를 가꾸기 시작하자 더 많은 사회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41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각자 자신들의 구역별로 꽃잔디 사이사이로 솟아나는 잡초를 뽑고 주변에 버리고 간 쓰레기 등을 주우며 경천변 가꾸기에 열심히 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변을 유지하고 있다.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달 28일 순창읍 경천변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로 경천변 일대 곳곳에 잔디를 식재했다.

이 또한 경천의 변신을 위한 식재 작업으로 이쁘게 쌓아 올린 식재의 틈새 곳곳에 잔디를 식재하면 경천변 가꾸기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 원본 아니라 순창군의회·산림조합·지역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했으며 경천변에 모인 참가자들은 잔디 식재와 함께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무엇보다 사회단체에서 소속 군민 300여 명이 함께하며 경천이 군민과 함께

가꾸는 천변으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경천과 양지천은 순창읍을 가로지르는 대표 하천으로 서울의 한강과 같이 저녁이면 군민들이 나와 산책하고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친수공간이다. 지난해 화려하게 꾸민 꽃잔디에 올해는 수선화까지 더해지면서 봄내음이 그 어느 때보다 향기롭다. 올해도 군민들이 순창을 떠나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 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양지천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더 특별하게 양지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참두름을 도시민과 군민이 마음껏 먹고 체험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순창 참두름 여행 축제도 준비했다. 양지천의 아름다움과 함께 신선한 참두름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지천과 함께 경천도 올해 하천 정비로 인해 아주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했다"면서 "내년이면 이제 경천도 양지천처럼 꽃잔디와 수선화로 꽃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화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병수 기자 hbs@skydaily.com



서산시는 '페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산시 '순환 경제사회 만들기' 페비닐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충청남도 서산시는 순환 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페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충남도에 이어 다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에너지스가 함께 협약을 체결했으며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페비닐을 재활용업체를 통해 열분해 유로 자원화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나프타·항공용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도 페비닐 분리 배출·수거 및 재활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페비닐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페비닐 수거·선별 등 협력에 나선다.

시는 비닐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페비닐 전용 비닐봉투를 공동주택에 배부했으며 비닐류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있고 상가·다세대 주택에서는 비닐류만 따로 모아 분리수거대에 거치된 재활용용 전용 수거 봉투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 대상 비닐은 커피라면과 자택배 비닐·에어캡·양파망·유색비닐 등 깨끗한 비닐이며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형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페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플라스틱 순환 경제사회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이 비닐류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jis@skydaily.com

세종시 "땅꺼짐 사고 막아라" 선제 대응

지하굴착 공사장 합동 점검 시민 불안 해소·안전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1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부산 광역시 등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

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지는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은 관내 건설현장 중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박물관단지과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지난해 4월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은 2022년 8월 각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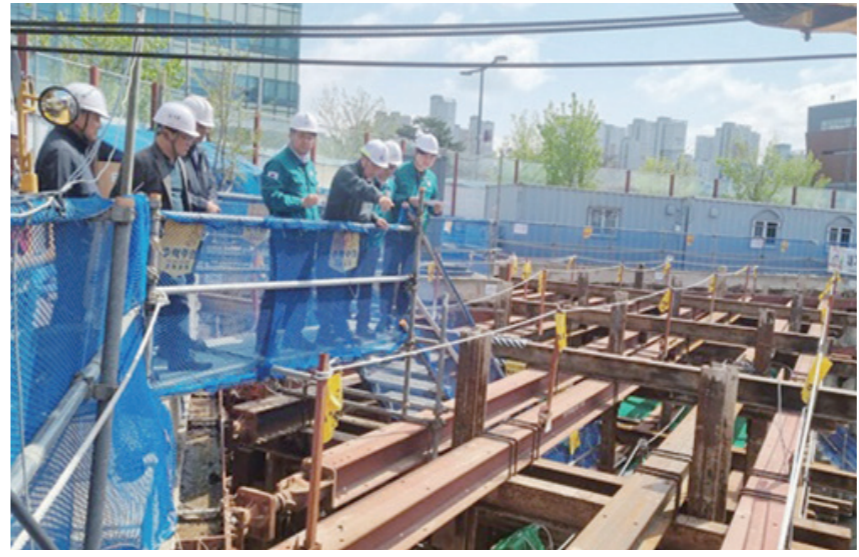
시는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 현장 굴착

방식과 땅꺼짐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하굴착 공사 현장에 대상으로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에 땅꺼짐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공사장과 주변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jis@skydaily.com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세종시

충주시, 수소·전기 저상버스 11대 도입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 재걸음 92대 중 45대 교체 도입률 49%

충청북도 충주시가 올해 수소 버스와 전기 저상버스 총 11대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7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 버스 18대, 전기버스 16대 등 총 34대의 친환경 저상버스를 구매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수소 버스 11대와 전기 버스 3대 하반기에 수소 버스 11대와 전기 버스 6대를 도입해 연말까지 총 11대를 추가로 시내버스 노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충주시에 올해 수소 버스와 전기 저상버스 총 11대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낸다.

충주시

새로 도입되는 친환경 시내버스는 주터과 엄정 방면 등 읍면 지역 노선에 우선 배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추가 도입으로 전체 시내버스 92대 중 45대가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

체되며 도입률은 약 49%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충청북도 전체 시군의 친환경 저상버스 평균 도입률이 36.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강용식 충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저상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특히 노약자 장애 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를 지속 도입해 교통약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현승 기자 bpda@naver.com

보령시 '청년 천원주택' 입주자 간담회

아파트 임대료 월 3만 원에 제공 주거 부담 경감·지역 정착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입주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보령시에 따르면 충남도 최초로 시행하는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은 청년

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10호를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3월 13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입주 모집을 마감했으며 선정된 입주자들은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박선애 기자 jis@skydaily.com

1만 개 불꽃이 밤하늘 빛낸다

26일 세종낙화축제 개최... 불명 등 즐길거리 풍성

세종특별자치시가 불교낙화법보존회와 26일 오후 7시30분부터 세종중앙·호수공원에서 '2025 세종낙화(落火)축제'를 개최한다.

1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낙화는 재앙을 소멸시키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 중 하나로 낙화봉에 불을 붙여 떨어지는 불꽃을 보며 마음을 정화하고 개인의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세종불교낙화법이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배에 달하는 1만여 개의 낙화봉을 나무에 걸어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연출할 예정으로 은은하게 밤하늘을 빛내는 낙화 연출은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2시간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돼 가족과 친구 등 함께 더욱 다채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조용히 '타닥타닥' 타는 불꽃을 감상하면서 불명하는 힐링존을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불꽃의 매력을 느끼며 소



세종특별자치시가 불교낙화법보존회와 26일 세종중앙·호수공원에서 '2025 세종낙화축제'를 개최한다.

세종시

원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낙화법보존회에서는 방문객들의 소망을 불꽃에 실어 소원을 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낙화봉 소원지 쓰기' 시민 체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해 무료입장 이벤트도 진행돼 낙화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다.

이진서 기자 jis@skydaily.com

홍성군 '이응노의 집' 문화탐방 40명 선착순 풍성한 경험 제공

충청남도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이응노의 집)은 6월20일 대전 이응노미술관과 헤레디움미술관을 방문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문화탐방은 각 미술관의 주요 전시를 관람하고 미술관에서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암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기획전 및 참여자 중심의 실습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탐방 프로그램은 6월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 신청은 내달 16일까지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이응노의 삶과 예술세계를 따라가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더 많은 주민과 관람객이 이응노의 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홍성군 통합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선애 기자 jis@skydaily.com